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혁신을 수용하라: 잠재력을 이끄는 이사회 역할」  
외 최신 동향

2024.07



#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03
II. 규제 동향	09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23
IV. FAQ	25
V. 그룹·센터 소식	30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혁신을 수용하라 : 잠재력을 이끄는 이사회 역할

2024년 6월, On the board's agenda, 「Embracing disruption: The board's role in championing innovation to capture potential」

- 현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사회는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과 전략적 리스크 평가를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진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사회는 경영진·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서 하향식 혁신을 주도하여 조직이 혁신을 수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사회가 조직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가속화된 변화 속도	● 혁신으로 인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구식화 될 수 있어 신기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는 위험하므로 이사회는 경영진의 혁신 추진속도를 촉구함
SI의 비즈니스 가치 창출	● SI 활용이 확대되면서 조직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가 재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이사회는 SI 영향력을 인식하고 경영진의 투자(M&A 등)를 감독함
기술의 영향을 받는 시장수요·고객 기대치	● 고객은 기업이 니즈를 예측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을 기대함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진을 독려하여 고객중심전략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고객 기대를 저해할 수 있는 경쟁사,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유도함
적응형 혁신 조직 구조/인센티브	● '점진적 개선과 전환적 혁신'을 모두 고려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경영진의 혁신 관련 의사결정 및 자원할당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유용함
'개방형 혁신' 모델의 인기 상승	●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비용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의 인기가 상승하여 이사회는 경영진에 개방형 혁신 기회의 모색을 장려하고, 데이터 리스크 등의 리스크 완화를 독려함

- 경영진의 혁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사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에 가장 큰 위협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은 무엇이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li> <li>● 최우선 혁신과제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내부투자자와 외부투자 중 무엇을 중시하는가?</li> <li>● 경쟁사는 시장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직의 경쟁적 포지셔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li> <li>● '점진적 개선 프로젝트'와 '전환적 혁신 프로젝트'를 어떤 조합으로 추진하는가? 투자의 성공율은 어느 정도이며, 조직은 충분히 과감한 투자를 하는가?</li> <li>● 혁신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가? 향후 매출에서 신규 제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유형의 효율성 향상 또는 투자 수익률(ROI)을 달성할 수 있는가?</li> <li>● 민첩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 혁신' 모델과 같은 선도적인 관행을 조직에 도입하고 있는가?</li> <li>● 전략적으로 조정된 혁신 투자와 혁신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경영진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거버넌스 기능을 갖추었는가?</li> </ul>

## 신뢰를 선도하는 내부감사의 역할

2024년 3월, The Wall Street Journal, 「Internal Audit: Uniquely Positioned to Lead on Trust」

- 신뢰는 비즈니스 성과와 재무적인 성과에 측정 가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조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한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신뢰도가 낮은 기업보다 최대 400%까지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응답함
  - 신뢰최고책임자(chief trust officer)를 임명했거나 임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조직은 6.1%이었으며, 41.4%은 조직에서 신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거나 임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Michael Bondar는 신뢰 구축의 증진을 위해 담당자 또는 지정된 리더 그룹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감사가 조직의 신뢰를 진전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와 내부감사 기능은 업무 특성상 조직의 많은 부분과 상호 연결됨
  - Geoffrey Kovesdy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조직의 위험을 대비하여 통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므로, 조직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조기에 개입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유용함
  - 내부감사는 신뢰 문제가 고객이나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따라서 CAE가 조직 내 신뢰 구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내부감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도달할 수 있음
- 내부감사를 통해 조직 내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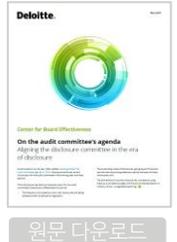
원문 다운로드

구분	주요 내용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경영진과 신뢰에 관해 논의하고 위험 평가 인터뷰 시 토론회의 장 마련</li> </ul>
신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업계의 맥락에 맞게 신뢰를 정의하고, 내부감사 계획을 조직의 신뢰 프레임워크에 연계하여 내부감사 대상, 이유 및 방법에 신뢰의 분류 기준 적용</li> </ul>
내부감사 업무에 신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 업무에 신뢰의 개념을 적용하여, 위험평가 시 신뢰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 프레임워크를 현장 점검에 연계</li> </ul>

##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2024년 5월,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Aligning the disclosure committee in the era of disclosure」

- 공시는 과거부터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공시 환경의 진화에 따라 세 가지 특징이 있음
  - 규제당국이 신규 공시를 채택·제안하는 빈도 및 속도
  - 재무 정보를 넘어서는 공시 범위의 확대와 이러한 공시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
  - 자발적 공시의 확산과 이를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기업, 보고의 표준화 부재 등
- 공시위원회 재구성시 고려사항
  - 공식적인 공시위원회 헌장 유지 및 개정 : 공시위원회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헌장에 명시된 공시감독의 책임 내용과 일치 필요
  - 공시위원회 위원(장) 재평가: 위원장은 재무 또는 법률 관련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시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타 영역(지속가능성, 사이버, 기술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위원회 운영 절차 강화: 감독당국의 공시내역 조사에 대비하여 위원회 운영 절차의 강화 필요
    - ✓ 공시사항 목록: 기업의 공시 통제 및 절차 개선을 위해 약점과 기회를 파악하는데 도움
    - ✓ 회의안건: 제출 서류 검토 이외 여러 주제에 대한 충분한 시간 확보
    - ✓ 체크리스트: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는 공시 및 통제 사항의 추적에 유용
    - ✓ 문서화: 공시통제 및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한 강력한 도구
- 감사위원회는 공시위원회가 현 공시환경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아래 질문을 통해 검토 가능함



### 공시위원회 재구성 관련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 공시위원회가 없다면 설치가 필요한가?
- 공시위원회 헌장이 있는가? 있다면 담당 공시의 범위와 깊이를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유관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는가?
- 공시위원회 안건은 관련 주제를 모두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공시심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문서화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는가?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생성형 AI, 금융혁신을 촉발하다

2024년 5월, Dipti Gulati(Deloitte US CEO·회계감사자문본부 파트너), FEI Daily 기고문, 「Generative AI's Potential to Revolutionize Finance」

-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생성 능력이 있어 전문가의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매출성장의 기회 창출에 유용함
- 생성형 AI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하므로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생성형 AI 전략을 설계해야 함
- 재무 담당임원(CFO)의 역할 및 생성형 AI 활용방안



구분	내용
관리자	• 질의 응답, 지침요약, 규제·규정 준수 여부 판단
운영자	• 과거 회의내용 분석을 통한 핵심주제 식별, 다양한 시나리오 계획, 투자자 질의사항을 예측하여 분기별 실적 발표 준비
전략가	• 장기투자 또는 M&A와 관련된 이사회 이해관계자 대상 발표시 전략적 거시경제 발전 예측,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가능
촉매제	•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평가 지원, 기업가치 개발 거래 평가, 실사 실행, 자본 최적화 기회의 식별 등 최적의 전략 결정 가능

- 생성형 AI 관련 주요 고려사항

### 인재

- 딜로이트 서베이에 참여한 CFO의 60%는 향후 2년간 생성형 AI 기술에 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함

### 사이버보안

-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이버 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음

### 신뢰성

-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프레임워크를 갖추면 리스크관리, 사용자 신뢰도 향상, AI 사용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기 위한 윤리적 보호장치 개발에 도움이 됨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불확실성 시대의 거버넌스 전환

2024년 4월, On the board's agenda, 「Governance of transformation amid an uncertain business climate」

- 딜로이트의 '마진플러스 2024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경제적인 격변, 지정학적 갈등 등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마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환 이니셔티브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전환 이니셔티브는 형태와 무관하게 효율성 강화, 수동 프로세스 감소, 비즈니스 운영 현대화 등을 목표로 하는 대변화를 수반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불확실한 거버넌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가 조직의 전환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감독할 것을 강조하며, 이사회가 집중해야 할 3가지 영역으로 다음을 제시함



구분	주요 내용
외부 압력 (External pressures)	● 경영진이 외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인식을 통해 격동적인 전환 이니셔티브를 통제 가능
타겟형 전환 (Targeted transformation)	● 과거에 사용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 이니셔티브와 달리 특정 사업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형 전환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음
경계하는 거버넌스 (Vigilant governance)	●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선제적인 이사회 전략(전략투자, 연결전략 및 레거시 기술 등)이 필요함

- 전환 이니셔티브 감독시 이사회가 고려할 질문

주요 질문
● 가장 최근의 전사적 또는 타겟형 전환 프로그램의 결과는 어땠는가?
● 이사회와 거버넌스 및 감독 프로세스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 현재 혹은 향후 고려중인 전환에 대해 명확한 참고사례가 있는가?
● 경영진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전환목표 평가 및 조정시 충분히 민첩한가?
● 외부요인이 전환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얼마나 자주 평가하는가?
● 의사결정 촉진을 위해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가?

##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의 진화

2024년 3월, Board Practices Quarterly, 「Evolving lines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board and management」

-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과 함께 점차 모호해지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책임 경계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명확한 책임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짐
- 본 보고서는 101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이사회 리더십 구조, 독립성, 관여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 서베이 주요 결과 (각 답변은 중복응답 가능)



### 1. 이사회 리더십 구조는?

- '선임사외이사\* 보유(46%)', '이사회 의장과 CEO가 분리(43%)', '이사회 의장과 CEO 미분리(41%)', 'CEO 및 사내이사인 이사회 의장 분리(16%)' 구조라고 답변함

\*CEO 또는 사내이사인 이사회 의장일 때,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의장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제도

### 2. 이사회 내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비중은?

- 'CEO를 제외한 모든 이사(42%)', '이사회 75% 이상(36%)', 'CEO 및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 (30%)' 순으로 답변함

### 3.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역할·책임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무엇을 활용하는가?

- 기업 거버넌스 가이드와 같은 거버넌스 문서 활용(95%), 신입 이사 오리엔테이션(84%), 정기적인 이사회 성과평가(80%) 및 이사 교육(64%) 등의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개발 및 업데이트 활동에 대한 이사회 승인 권한 보유 현황은?

- 이사회 승인 필요: 연간 예산(73%), 최고경영진 윤리강령(69%), 최고경영진 이하 임직원의 윤리강령(64%), 최고경영진 선발·선임·해임(51%)
- 이사회 검토만 수행: 중장기 전략 계획(51%)
- 위원회 검토만 수행: 사회적 영향/기업책임전략(51%)
- 이사회/위원회의 검토/승인 필요하지 않음: 임직원 휴가/PTO 규정(70%), 최고경영진 출장 및 경비규정(51%), 연간 임직원 복리후생(59%), 이해관계자/주주참여규정 및 전략(52%), 최고경영진 이하 직원과의 상호작용(50%) 등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 지침(안) 마련

2024.07.12 (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함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주요내용

### 1.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 책무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임

### 2.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실시 예정
-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
-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예정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 1. 위법행위 고려요소로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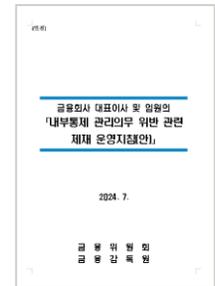
- 발생 경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임원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하였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예정
-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예정

### 2. 상당한 주의여부는 임원이 위법행위 등 결과발생을 예측 가능했는지와 방지조치 이행 여부로 판단

- 예측가능성은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결과 회피 여부는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원문 다운로드



별첨

# 책무구조도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령해설서 마련

2024.07.03 (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공개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다음의 답변내용을 포함



### 1. 책무의 정의

- 책무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임

### 2. 책무의 배분과 범위

- 책무는 임원, 직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음
-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3. 책무구조도 마련

- 대표이사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 임원의 유고시 책무 누락방지를 위해 대체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함
- 동일 이사회에서 복수 임원의 책무 변경을 한 번에 의결 가능하며 책무구조도 변경\*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 4. 제재 및 지침

-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고,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받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중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및 상장사 지원 강화

2024.07.02 (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시행 및 상장사 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함

### 1.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 '25년도 반기보고서('25년 8월 제출, 12월 결산법인)부터 시행
- 금융업 상장법인(유가코스닥) 중 개별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부터 우선 시행
- 이후, 2조원 이상('26년도 반기보고서) 및 2조원 미만('27년도 반기보고서) 금융업 상장법인 등으로 순차적 시행 예정

<표1>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방안 요약(12월 결산법인 예시)

구분	최초 적용시기(비금융업) - 기안내			최초 적용시기(금융업)		
	'23년도 사업보고서 (24년3월제출)	'24년도 사업보고서 (25년3월제출)	'25년도 사업보고서 (26년3월제출)	'25년도 사업보고서 (25년8월제출)	'26년도 사업보고서 (26년8월제출)	'27년도 사업보고서 (27년8월제출)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최초 적용그룹	두번째 적용그룹	세번째 적용그룹	두번째 적용그룹	세번째 적용그룹	네번째 적용그룹
	2조원 이상 (기시행)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	10조원 이상	2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2조원 미만
	156사	340사	1,825사	27사	14사	93사

\* 직전 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에 따라 대상회사는 매년 변동 가능('23년도 결산기준 예시)

### 2. 비금융업 상장법인 XBRL 주석 재무공시에 대한 평가

- 첫 XBRL 주석 공시('23년도 사업보고서/156사)의 경우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제출한 XBRL 주석 중 일부(42사, 27%)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정정공시 함
- 두 번째 XBRL 주석 공시('24년도 1분기 보고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실무교육도 제공한 결과, 오류 없이 모두 정상 제출됨
- 상장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계법인의 XBRL 품질관리 강화로 최초 적용그룹의 재무공시가 안착되는 것으로 평가됨

### 3. 상장사 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

-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업계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며, 주요 상장사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XBRL 재무제표 작성 매뉴얼' 검토 및 금융감독원 XBRL 작성기 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등과의 1:1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XBRL 전문 교육을 지속 제공하여 회계법인의 자문 품질을 제고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원문 다운로드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4.06.26 (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지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
- 의결 주요 사항

### 1.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을 규정

- 책무구조도는 '책무기술서'(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책무체계도'(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로 작성
-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배구조법상 사유에 더해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

### 2.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직원 추가

- 기존에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규정(지배구조법 시행령)
-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

### 3.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 추가

-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함
-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4.7.3.에 시행될 예정임



## II 규제 동향

# 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 67개국 중 20위

2024.06.18 (화) 기획재정부

● 6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함

- 한국은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하여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함
- 국가경쟁력 평가 4대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33위에서 23위로 대폭 상승함

<표1>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순위	28위	23위	23위	27위	28위	20위
기업효율성 분야	34위	28위	27위	33위	33위	23위
경제성과 분야	27위	27위	18위	22위	14위	16위
정부효율성 분야	31위	28위	34위	36위	38위	39위
인프라 분야	20위	16위	17위	16위	16위	11위

● '기업효율성'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인 '생산성'(41→33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노동시장'(39→31위) 및 '태도·가치'(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함

<표2> 기업효율성 분야 주요 평가항목 순위

구분	경영관행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태도·가치
'19년	47	38	36	34	25
'20년	36	38	28	34	15
'21년	30	31	37	23	21
'22년	38	36	42	23	23
'23년	35	41	39	36	18
'24년	28	33	31	29	11

●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 노력의 긍정적 성과를 확인함

- 기업 설문 비중이 높은 기업관련 부문(경영관행, 태도·가치)에서도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반영됨
- 앞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계획함



원문 다운로드

## 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4.06.14 (금)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4.6.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할 전망
-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구분	내용
중간합계 관련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 (subtotal)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li> <li>•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예정</li> </ul>
안내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li> <li>•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li> <li>• 세미나, 포럼, 실무간담회, 질의회신 전담팀 및 전용 웹사이트 등 운영 예정</li> </ul>
영향 분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추진 예정</li> <li>•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산업별(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li> </ul>
규제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li> </ul>

- 향후 계획으로,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25년 중 개정하여 '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2024.06.14 (금)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함

### 1. 수익인식 회계처리

-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수익기준 (K-IFRS 제 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2. 비시장성 자산평가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3. 특수관계자 거래 및 회계처리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관련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4. 가상자산 회계처리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제 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예정임



## 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2024.05.31 (금) 금융감독원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537사)로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도 97.3%(1,544사)로 전기(97.5%, 1,472사)와 유사한 수준임



원문 다운로드

### 1. 재무제표 감사의견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02사)의 97.5%(2,537사)로 예년 수준을 유지
- '적정 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사(3.9%) 포함됨
- '비적정' 의견(65사)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587사)의 97.3%(1,544사)로 전기(97.5%)와 유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사(2.7%)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26사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사로 구성
- 부적정(17사)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공정가치 평가·대손 설정'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나 '자금거래'와 관련된 부정예방·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단위: 사, %)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적정	의견거절	한정	
내부회계 부적정	17 (39.5)		6 (14.0)	3 (7.0)	3 (7.0)
내부회계 의견거절	26 (60.5)	23 (53.5)	23 (53.5)	- (-)	3 (7.0)
합계	43 (100.0)	29 (67.5)	26 (60.5)	3 (7.0)	14 (32.5)

\*괄호 안은 전체 비적정 상장법인(43사) 중 차지하는 비중

### 3. 회사 유의사항

- ① 재무제표 비적정 : 감사대비 충실히 자료를 준비
- ② 내부회계 비적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
- ③ 경영진·감사기구 :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을 공시

##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2024.05.27 (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대한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올해 1분기 중 은행별 이행계획을 점검함
- 점검대상은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16개)으로 총 24개사임
-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1.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 (업무총괄자 지위/임면/평가) 대부분의 은행이 업무총괄자를 부사장급 이상으로 지정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지 이사회 사전보고 및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
  - 상반기 9사, 하반기 9사, 미정 2사, 기완료 4사
- (지원조직 인력) 대체로 인력 규모는 크지 않음 (업무총괄자 외 2명 수준으로 계획)
  - 상반기 5사, 하반기 6사, 연내 1사, '25.1분기 1사, 기완료 11사

### 2.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 (종합적 승계계획) 대부분 CEO 후보군 관리부터 선정까지 포괄하는 승계계획의 구체화·문서화 진행
  - 상반기 5사, 하반기 9사, 연중 2사, '25.1분기 2사, 기완료 6사
- (CEO 자격요건)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
  - 상반기 4사, 하반기 12사, 연내 2사, '25.1분기 2사, 기완료 4사

### 3.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 (Board Skill Matrix) 쉰 은행이 BSM(역량진단표) 도입 예정, 실질적 활용 위한 구체화 필요
  - 상반기 5사, 하반기 13사, 연내 1사, '25.1분기 2사, 기완료 3사

### 4.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 (평가체계 점검) 쉰 은행이 주기적인 평가절차·체계 적정성 점검 예정이며 일부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검토
  - 상반기 5사, 하반기 12사, 연내 1사, '25.1분기 2사, 미정 1사, 기완료 3사
- 금융감독원은 금년도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24.5.23.~)을 통해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향후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감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임



원문 다운로드

## II 규제 동향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2024.05.24 (금)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최근 횡령에 따른 회계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횡령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 횡령 관련 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하고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미비하였으며, 특정 인원이 장기간 자금업무와 회계업무를 함께 담당함
  -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적발 전 5년 간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장부와 계좌 사이 현금잔액 차이를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함
  - (B사) 乙 재무팀장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개인 주식투자에 유용한 뒤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함
  - (C사) 경리팀 丙부장은 적발 전 11년 간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을 매출채권 미회수액으로 위장함
-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승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개설, 출금, 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필요</li> <li>• 출금,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 마련</li> </ul>
업무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업무와 회계업무를 분리하는 업무분장 필요</li> </ul>
업무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 주기적 순환 및 교체</li> </ul>
잔고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및 계좌잔고 수시 점검</li> <li>• 회사장부와 잔고증명서 및 펌뱅킹 화면 등 외부 증빙 반드시 대사</li> </ul>
보관·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인감, OTP 따위의 중요한 물품은 서로 다른 인원이 분리하여 보관</li> <li>•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li> </ul>
내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이사 아닌 독립된 내부감사 임명</li> <li>• 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수행할 필요</li> </ul>

- 금융감독원은 '23회계연도 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



##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2024.05.03 (금)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3년도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3년간('11년~'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을 공개함
  - '23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매출원가 관련(6건), 재고·유무형자산(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4건) 등으로 구성됨

<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건)

공개 시기	'24.05	'23.11	'22.06	'21.12	'21.06	'20.08	'19.12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3년	'22년	'21년	'11~'14년	'20년	'15~'17년	'18~'19년	'11~'23년	
지적 유형	매출·매출원가	6	3	4	4	5	12	4	38
	투자주식	-	4	3	4	5	6	4	26
	재고·유무형자산	2	3	3	-	1	5	7	21
	기타자산/부채	4	5	2	8	2	5	7	33
	주석미기재 등	2	3	3	11	2	9	7	37
지적사례 수(합계)	14	18	15	27	15	37	29	155	



원문 다운로드

-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 (요약)

구분	내용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li> </ul>
공사수익 과대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위해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 계상</li> </ul>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그룹은 C사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인수하는 허위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 계상</li> </ul>

-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임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2024.05.03 (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1.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 (문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실태가 상이하며,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혼선이 발생함
-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사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마련함
-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적용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 조정(배제 또는 수정)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2. 공동·상호간 업무 관리

- (문제)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나 실제 업무 수행시 관리범위(기준)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체계적·실질적 관리가 미흡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는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며,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됨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함
-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3.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관리

- (문제) 소속회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의 관리는 비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이나,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는 등 그룹별 격차가 발생함
-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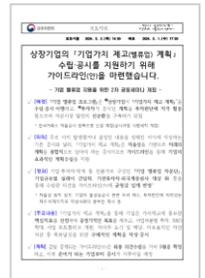
##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가이드라인안 공개

2024.05.02 (목) 금융위원회

- 5월 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함
-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시이므로 기업의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가이드라인(안)은 기업·투자자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기업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기관투자자·외국계증권사대상 IR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반영함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구분	내용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여부, 작성내용 등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 보장</li> </ul>
미래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미 발생·결정한 내용 중심의 기존 공시와 달리,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으로 작성</li> </ul>
종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등 각종 공시에 산재된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적·입체적 보고서 성격</li> </ul>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내용, 서술방식에 있어 기업의 개별특성과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수립</li> </ul>
이사회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경영관리에 책임있는 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적극적 참여 필요, 이사회에 보고·심의·의결 등 권장</li> </ul>

-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를 실시할 예정임



원문 다운로드



별첨



별첨

##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4.04.18 (목)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대해 감독당국이 균형감 있는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과 주주, 투자자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함
-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구분	내용
주주행동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행동주의 활동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위한 책임감 및 투명성 고려</li> <li>• 단기수익만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 성장전략의 중요성 강조</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주주들이 쉽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춰,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li> <li>• 스스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는 주주와의 적극 소통을 당부</li> </ul>
시장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대응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주주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주주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li> </ul>

-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구분	내용
주주행동주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기업의 비협조에 따른 주주권 행사가 어려움</li> <li>•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회사의 장기성장목표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행동주의가 기업 평판 및 경영안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기업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li> <li>• 주주활동 변화와 주주권익 강화 차원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이해함</li> </ul>
시장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행동주의는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활동 필요</li> <li>• 기업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지향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필요</li> <li>• 투자자들에게 해당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 개선 필요</li> </ul>

##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韓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일관성 부족...장기 전략 필요 [한국경제TV]
- 이복현 'K-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 [동아일보]
- 정무위 김남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밸류업 지름길' [디지털타임스]
-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방안 담긴다 [KBS 뉴스]
- 주요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7.3%P 하락...'집중투표제 도입' 4.2%뿐 [경향신문]
- '거수기' 이사회에 메스...은행 지배구조 개편 속도 낸다 [조선비즈]
- 제22대 국회 운영 전망...'ESG-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이로운넷]
- '쫓개기상장 터널링' 제동... 상장사 지배구조개선 자율공시 권고 [연합뉴스]



### 이사회·감사위원회

- 이사회, 주주 이익도 지켜야...정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동 [한겨레]
- 애플 대표가 나이키 사외이사...전문가 뽑는 미국, 거수기 꽃는 한국 [경향신문]
-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 '성 다양성 갖춘 이사회가 부실 위험 줄여' [한국경제]
- 상장사 이사회 '밸류업 관련 이사회 참여 수준은 기업이 결정해야' [조선비즈]
- 이사회 '성 다양성' 의무화...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만 짚끔 늘어 [한겨레]
- 상장사 이사회 '밸류업 관련 이사회 참여 수준은 기업이 결정해야' [조선비즈]
- 이사회역할 힘신는 최태원 '의사결정 셀프디자인하라'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 3호' 발간 [한국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공시 대비, 전사적 관심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이투데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6호' 발간 [조세일보]
- 딜로이트,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보고서 발간 [조세일보]
- 글로벌 톱 회계법인이 전하는 경제 지식...'딜로이트 인사이트 앱' 인기 [서울경제]



##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



- 금감원, 新외감법 준수 촉구...'감사품질 관리수준 높일 것' [아이뉴스24]
- 최운열 회장 '회계 투명성으로 밸류업...기업성장 돕겠다' [한국경제]
- 금감원,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감사 품질 차이 커 ...개선 필요 [뉴시스]
- 한국세무사회, 7월부터 복식부기 전면 시행...'회계 투명성 제고' [국세신문]
-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될 것...투명성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 부정행위방지



- 금융사고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시행...올해까진 시범운영 [경향신문]
- 난무하는 자금 횡령... 금감원, 내부통제 미비 기업 엄중 조치 [아주경제]
- 감사의견 '비적정', 받은 곳이 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 기업들 "영업비밀 유출 막을 최선 수단은 강한 처벌" [뉴시스]
- 대법원 "알려진 정보라도 유기적 조합했다면 영업비밀" [조선일보]

### 규제동향



- 3일 부터 시행, 금융권 '책무구조도'...금융 당국, 해설서 공개 [디지털데일리]
- 대형 금융사, 내년부터 XBRL로 재무제표 주석 공시한다 [한국경제]
- 금융당국,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 [연합인포맥스]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8계단 상승 [MBC 뉴스]
- 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표 [법률신문]
-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이투데이]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평가서 '내부통제' 중요성 커진다 [매일일보]
- 금감원, '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4건 공개' [조세플러스]

### M&A



- M&A 시장에도 몰아닥친 ESG...기업 인수 핵심변수로 부상 [한국경제]
- 주연급 없었던 M&A, 하반기엔 조 단위 빅딜 터지나 [이데일리]
- M&A 이후 시너지 효과 정량평가해서 공시?...'현실적으로 어렵다' [매일경제]
- 상장사 절반 '이사 충실의무 확대되면 M&A 재검토 또는 취소' [KBS 뉴스]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배당 M&A제도 개선 함께 추진해야 성과' [서울경제]
- 중소기업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한국경제]

## 이사회 평가 - 금융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 1. 실효성 있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평가시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평가방안은 무엇인가요?

- 작년 12월에 발표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바람직한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를 제시하며, 실효적인 평가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할 것을 강조함<sup>1)</sup>
  -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결과가 대부분 '우수' 이상으로 관대화되는 경향이 있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에 대해 5개 핵심원칙을 제시함<sup>2)</sup>

<표1> 지배구조 모범관행 내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에 대한 핵심원칙

구분	내용
원칙 26	•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하여 적합한 절차와 방식을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 실시
원칙 27	•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평가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을 통하여 공정성·객관성 제고
원칙 28	•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항목·내용 등을 정기적(최소 연 1회)으로 정비하고, 평가체계의 적정성을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최소 매 3년) 점검
원칙 29	• 사외이사 평가결과는 이사 재선임과 연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선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문서화
원칙 30	•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평가결과에 대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개선 등 환류(feedback)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내용 공시

- (원칙 26) 정성평가시 설문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평가항목, 내용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객관식/주관식 문항의 적절한 혼합, 자유기술형 질문 추가, 이사회 의장 및 위원장의 경우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며, 설문 뿐 아니라 개별 이사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음
- (원칙 26) 사외이사 평가시 개별 이사의 기여도와 연결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바탕으로 계량화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표(교육 참여율, 투입시간 등) 활용을 권장하며, 자기평가 및 임직원평가 비중 이 지나치게 높아(30% 이상) 객관성이 및 독립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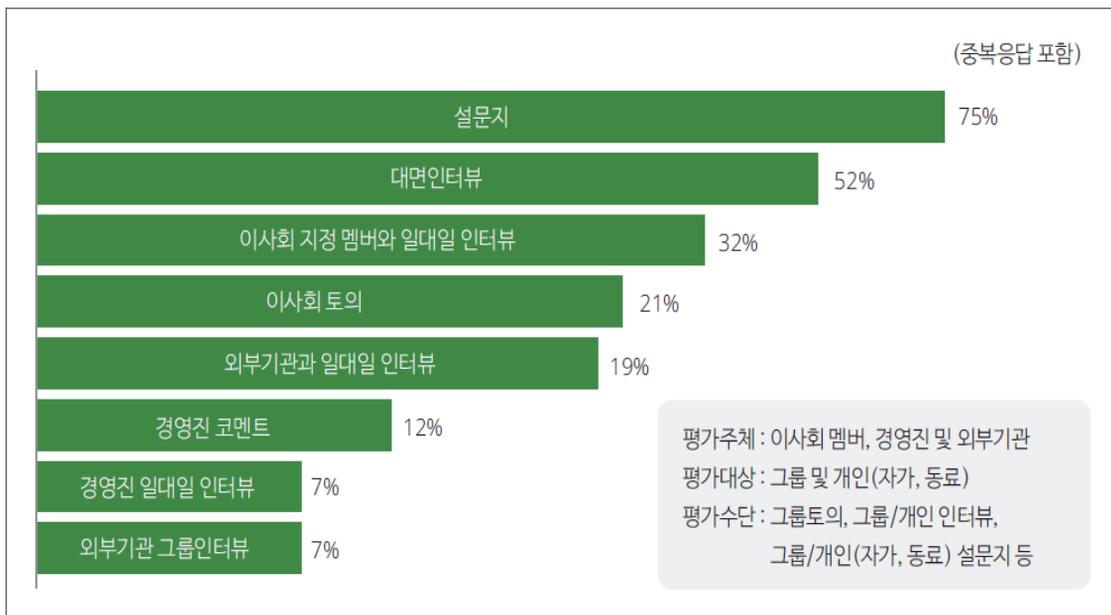
1) 금융감독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2023.12.13

2) 금융감독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2023.12

1. 실효성 있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평가시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평가방안은  
 무엇인가요? (계속)

- (원칙 27) 외부기관 활용시 설문지 구성 등 평가체계 점검, 평가지원, 평가참여, 보고서 작성·액션 플랜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은행 및 이사와 해당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공시해야 함
  - (원칙 28) 평가항목 및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및 위원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평가절차, 방식 및 내용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평가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평가체계의 적정성은 외부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점검할 것을 권고함
  - (원칙 29) 재선임 기준은 일정 점수/등급 또는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
  - (원칙 30) 평가결과를 이사회 등에 공유하고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 절차를 마련하여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평가절차, 방법, 결과, 개선안, 개선안 이행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함
-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주요 평가수단(지면 설문지, 일대일 인터뷰, 그룹 인터뷰, 제3자 인터뷰 등)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

<표2> 미국 이사회 평가수단 <sup>3)</sup>



3)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est Practices Quarterly」, 2022.09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방법 및 유의사항

### 2. 금융당국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화두가 되고 있고, 자사도 참여를 고려 중입니다. 공시방법 및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가치 제고(Value-up) 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으로, 기업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1>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주체 및 공시 방법<sup>1)</sup>

구분	내용
작성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사업 및 경영 계획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 및 재무담당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li> </ul>
관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는 경영진이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보고,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li> </ul>
공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계획서를 첨부하여 '자율공시 서식'으로 제출</li> <li>해외 투자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공시 병행 장려</li> </ul>
공시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사항이지만 연 1회 등과 같이 주기적 공시 권장</li> <li>특정 부문은 202x년 x분기 포함 예정 등 예고 공시도 가능</li> </ul>

-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이전에 홈페이지 공표 등으로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자율사항이지만 연 1회 등과 같이 주기적 공시를 권장함
  - 12월 결산법인 기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주요 지표가 산출되고 사업보고서가 배포된 이후인 상반기에 공시하는 것을 권고함
  - '24년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준비되는 때부터 공시하고 '25년부터 매년 상반기 공시를 권고함
- 주주 등이 용이하게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공시시점을 변경하는 경우 예고공시로 공시시기 안내 가능함

1)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24.05

2. 금융당국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화두가 되고 있고, 자사도 참여를 고려 중입니다. 공시방법 및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 자율공시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허위 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허위내용 기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제시한 목표 및 이행계획은 예측을 수반하므로 단순히 목표의 달성 및 예측에 실패한 것만으로는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공시규정상 예측정보 공시방법<sup>2)</sup>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불성실 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4월 2일,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밸류업 관련 지원 방안을 공표하였음

<표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sup>3)</sup>

분야	인센티브	발표일
세무 회계	<b>① 5종 세정지원</b> -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 법인세 감면 컨설팅 - 기업승계 컨설팅	2월 26일
	- R&D공제 사전심사	
	-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상장 공시	<b>②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b>	4월 2일
	<b>③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b>	
	<b>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b>	
홍보 투자	<b>⑤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b>	2월 26일
	<b>⑥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b>	
홍보 투자	<b>⑦ 거래소 공동 IR 우선참여 기회 제공</b>	2월 26일
	<b>⑧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b>	2월 26일

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7조·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6조

3) 금융위원회,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다.」, 2024.04.02

2. 금융당국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화두가 되고 있고, 자사도 참여를 고려 중입니다. 공시방법 및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의 ①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지원, ②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유도, ③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로 구성됨

<표3> 기업가치 제고 계획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업가치 제고 수립·이행·소통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연 1회 자율 공시, 주주와 소통
이사회 역할 강조	•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활용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표	• PBR, PER, ROE 분기별, 배당수익률 연 1회 공표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IR 등	• 기업 밸류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시장참여자의 이해와 비교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음

<표4>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사항

구분	내용	
기업개요	• 업종, 연혁, 제품서비스, 재무실적 등 기본 정보 제공	
현황진단	사업현황	• 사업모델, 국내외 시장여건, 경쟁우위요소, 리스크요인 등
	지표선정	• 기업특성 감안한 재무지표(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또는 비재무 지표(지배구조 현황)
	지표분석	• 시계열분석,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등
목표설정	• 중장기 목표, 계량화된 수치 등으로 명료하게 제시 권장, 정성적 서술도 가능	
계획수립	• 기업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계획 수립, 목표-계획간 연계성 설명 • 수익성(성장성) 제고 계획, 주주환원 계획,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 수립	
이행평가	• 목표 달성 및 계획 이행 여부 평가 •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 재설정 및 계획 수정	
소통	• 주주, 시장참여자와 소통현황, 계획, 실적 등 제시	

# 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
- 일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0:00 ~ 15:00
- 장소: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아잘레아스 (7F)
- 문의: krccg@deloitte.com

신청하기

QR 코드



신청하기 클릭  
혹은 QR코드 스캔

### Agenda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 과제

<b>Opening</b> 10:00 ~ 11:00	<b>Opening Remarks</b>	<b>홍종성 총괄대표</b>
	축사	
	<b>Keynote Speech</b>	<b>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b>
	참석자 인사	
<b>Session</b> 11:00 ~ 15:00	<b>1 내부통제 최신 동향 및 시사점</b>	
	1-1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공시 강화에 따른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b>정현</b>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1-2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b>이승영</b>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오찬	
	<b>2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b>	<b>장정애</b> 동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eak Time		
<b>3 Digital Transformation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b>	<b>이성호</b> 컨설팅부문 (AI&DATA) 상무	
<b>Closing</b> 15:00	<b>Closing Remarks</b>	<b>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b>

\* 각 세션에 Q&A 포함

\*\*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 양방향 소통을 위해 소규모 정원으로 진행되며, 참석자간 교류를 위해 네트워킹 세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장소 수용인원으로 인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초대장은 8월 5일에 배포 예정입니다.

# 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웨비나] 지정학과 미국 선거: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항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0월 17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히라 나이트(Shahira Knight), Deloitte US 정책 및 대정부 관계 관리 책임자, 전 백악관 입법 업무 담당 국장</li> <li>• 모리스 옵스트펠드(Maurice Obstfel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명예 경제학 교수</li> <li>•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Admiral James Stavridis),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16대 최고사령관, 칼라일 그룹의 글로벌 업무 부사장·전무 이사,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사회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불확실한 선거 결과와 선거 결과가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사회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함</li> <li>• 이사회는 어떻게 지정학적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의사 결정을 조정할 수 있을지 견해를 공유할 예정임</li> </ul>

#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외부강연: 2024 Corporate Citizen Forum



스케치영상보기

### 구분

### 내용

#### 개요

- ‘인사이트코리아’ 주최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4 기업시민포럼 ‘기업시민이 만드는 굿 거버넌스’에서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글로벌 이사회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함
- 국내 기업 지배구조 평가 항목 중 투자자 부문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대체로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는 중하위권이라는 점이 아쉬우며, 특히 지배구조 제도, 상장 기업 등 하위권 항목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함
-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향후 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 경영진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나아가 외부 감사인까지 포함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유기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결국 기업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성장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밝힘
-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고경영진은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기업지배기구데이터 동향」 제 3호 발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7월 9일,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 3호를 발간하였으며, 금번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된 15개 핵심지표의 4개연도 준수율을 분석해 전반적인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동향을 담음
-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금융 부문 477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체 평균 준수율은 49.7%로, 전기대비 1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규모별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62.9%로 전년 대비 5.6%p 하락했고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42.9%로 8.3%p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5.8%의 준수율을 보임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올해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되면서 전체 평균 준수율이 낮아지고, 자산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되면서 준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함

다운로드



카드뉴스

영상뉴스

구분	목차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론</li> <li>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li> <li>③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li> <li>④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li> <li>⑤ 결언</li> <li>⑥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1-'24)</li> </ul>
II. 2024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li> <li>②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li> <li>③ 배당절차 개선 관련 추진 경과</li> <li>④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li> <li>⑤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li> </ul>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6월 3일 (월) 14:00 ~ 17:20		
장소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내용	<b>구분</b>	<b>내용</b>	<b>담당</b>
	14:00 ~ 14:05	Opening Remarks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홍종성 총괄대표
	14:05 ~ 14:30	세션1. 기초강연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내부통제 중심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4:30 ~ 14:55	세션2.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 ~ 15:05	Break Time	
	15:05 ~ 15:30	세션3.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방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권대현 파트너
	15:30 ~ 15:45	세션4.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15:45 ~ 15:55	Break Time	
	15:55 ~ 16:25	세션5. 패널 토론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b>좌장:</b> 유승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b>토론자:</b> 1) 김지은 신한금융투자 감사파트장 2)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전 학술상(공로상) 수상자 4)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16:25 ~ 16:30	Closing Remarks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16:30 ~ 17:20	네트워킹 세션		

다시보기

스케치영상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계속)

- ▶ 금번 세미나는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을 주제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감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아젠다로 구성된 총 5개 세션을 선보임
- ▶ 참석자 간 교류의 목적으로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하여, 당면 아젠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음

[다시보기](#)  
[스케치영상](#)



### Session 1.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 (내부통제 중심으로)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 중요 회계기준 위반 상황을 비롯하여 내부통제 감독이 부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처분을 받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회계처리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함
- ▶ 외관상 상당한 동기를 가진 중요한 거래일수록 철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공개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함

### Session 2.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을 어떻게 평가할지 방향을 제시함
-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풀을 활용한 사외이사 선임, 내부감사부서와 유기적인 연대와 권한 확보 등을 강조함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계속)

### Session 3.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향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

- 책무구조도 이행점검 방안으로 부서장 등이 책무기술서와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상 조치 활동 수행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총괄부문에서 모니터링·보고 절차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

### Session 4.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 전반의 개선,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5대 중점과제로 사이버보안, 전사리스크관리, 재무 및 내부감사인재, 법률 및 규정 준수, 재무혁신 등을 짚었음

### Session 5.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좌장 유승원(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외 토론자 4인

- (금융사)이체지시와 자금보관집행의 견제구조 확립, 고위험 직무담당자에 강화된 내부통제 적용 등을 제시함
- 금융기관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펴보고 일반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횡령예방책으로 내부회계 감사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은 설치시 혜택(ex세액공제) 제공 등을 제시함
- 외부데이터 조회 통해 신속한 횡령 적발 가능함

 다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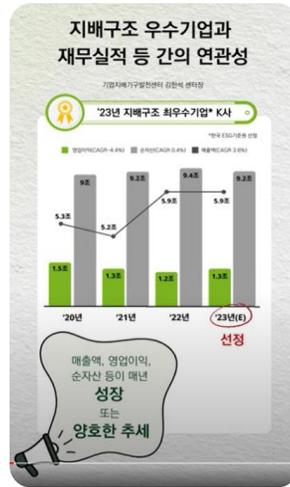
 스케치영상

#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YouTube]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5호를 소개합니다

[영상 보기](#)



### 구분

### 내용

#### 개요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기업지배기구 Insights』 보고서는 기업지배기구 이슈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23년 3월에 창간하여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음
- '24년 2월 말에 발간된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5호의 전문가 기고 섹션의 첫번째 원고는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이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 간의 연관성'을 주제로 다룸
- 두번째 기고문은 박재환 동 센터 자문위원 겸 중앙대 교수가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일 비교'를 논의하였으며, 세번째 기고문은 장정애 동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를 논의함
- CCG 아젠다 섹션에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조건과 감사위원회 고려사항'과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이 발간한 보고서인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데이터 포인트 섹션에서는 "22년과 '23년 금융사의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현황"을 담음
-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다운받아 확인 가능하며,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거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간물 구독 신청서 보고서와 카드뉴스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음

##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CFR Regulation (상/하)</li> <li>2. ICFR 감사방법론</li> <li>3. 위험평가</li> <li>4. 범위선정</li> <li>5. 통제활동 (상/하)</li> <li>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li> <li>7. 운영평가 (상/중/하)</li> <li>8. 모니터링 및 보고</li> <li>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li> <li>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li> <li>11. 자동통제 (상/하)</li> <li>12. Post ICFR 운영방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li> <li>•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li> </ul>

 신청하기

##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li> <li>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li> <li>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li> <li>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li> <li>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li> <li>6. 요약</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li> <li>•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li> </ul>

 동영상 보기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